

2026.08.18.

증권사 2026년 2분기 실적 점검

- 분기 최대 실적 기록, 위탁매매 수지 증가가 전체 실적 견인

- 그룹별 실적 격차 확대, 증시 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실적 변동 모니터링 계획

이혁진 금융2실 선임연구원 02.368.5480
hjlee@korearatings.com
이창원 금융2실 실장 02.368.5638
cwlee@korearating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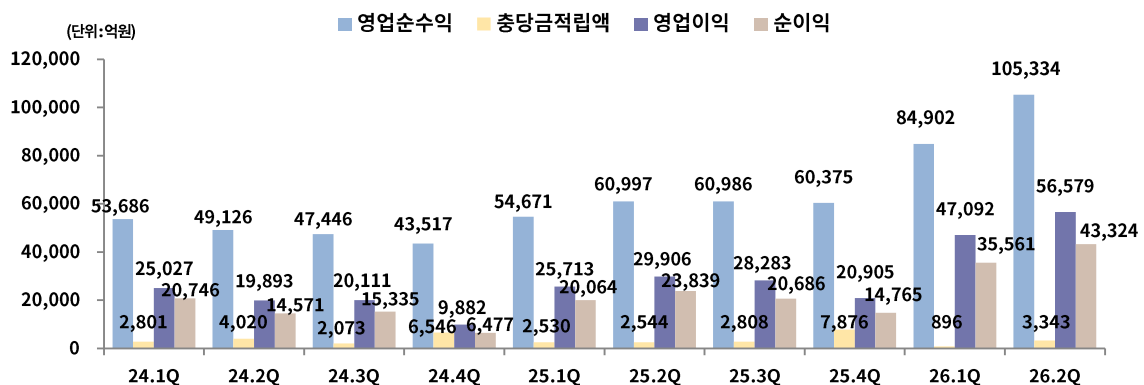
증권사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공시되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KR')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6개 증권사의 2026년 2분기 증권사 영업순수익은 10.5조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분기(8.5조원)를 재차 상회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위탁매매수지 증가가 실적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상품운용부문은 주식·ETF 운용손익을 중심으로, 투자은행부문은 채무보증수수료를 중심으로 영업실적 개선세가 이어졌다. 한편, 위탁매매부문을 포함한 상품운용, IB, WM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B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7월 이후 증시 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매매 및 주식·ETF 운용 중심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실적 전반에 부담 요인이다. 한편,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과 위험값 상향 등 규제 강화로 신규 부동산 투자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본력이 열위한 일반증권사의 PF신규투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2026년 2분기 실적 점검

증권사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공시되었다. KR이 유효등급을 보유한 26개 증권사(종합B¹ 9개사, 중대형사² 9개사, 중소형사³ 8개사)의 2분기 영업순수익은 10.5조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분기(8.5조원)를 재차 상회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5.7조원, 4.3조원으로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 증권사 실적 및 총당금적립액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¹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²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유진투자증권

³ DB증권, LS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DS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표 1] 증권사 부문별 영업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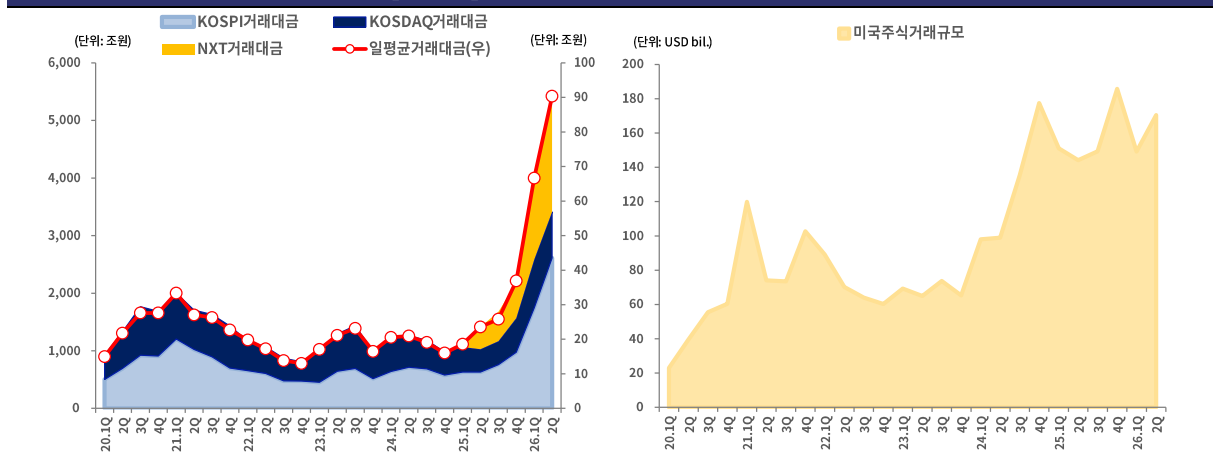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4.1Q	24.2Q	24.3Q	24.4Q	25.1Q	25.2Q	25.3Q	25.4Q	26.1Q	26.2Q
위탁매매부문	20,077	19,919	19,335	18,601	19,104	22,494	24,192	30,225	42,880	53,757
위탁매매수수료	11,606	11,101	10,659	10,559	11,226	13,535	15,732	20,025	31,476	41,064
신용공여금수익	6,965	7,219	7,074	6,717	6,571	7,847	7,097	8,861	9,767	10,845
상품운용부문	27,993	23,533	22,143	18,043	28,552	33,891	24,880	21,568	31,686	40,213
투자은행부문	11,337	11,237	11,744	13,189	12,089	13,398	12,405	12,661	11,931	14,452
자산관리부문	2,723	3,020	2,788	2,680	3,092	3,073	4,035	3,768	5,831	8,568
기타부문	-8,445	-8,583	-8,564	-8,996	-8,165	-9,814	-6,572	-8,021	-7,426	-11,657
영업순이익	53,686	49,126	47,446	43,517	54,671	60,997	60,986	60,375	84,902	105,334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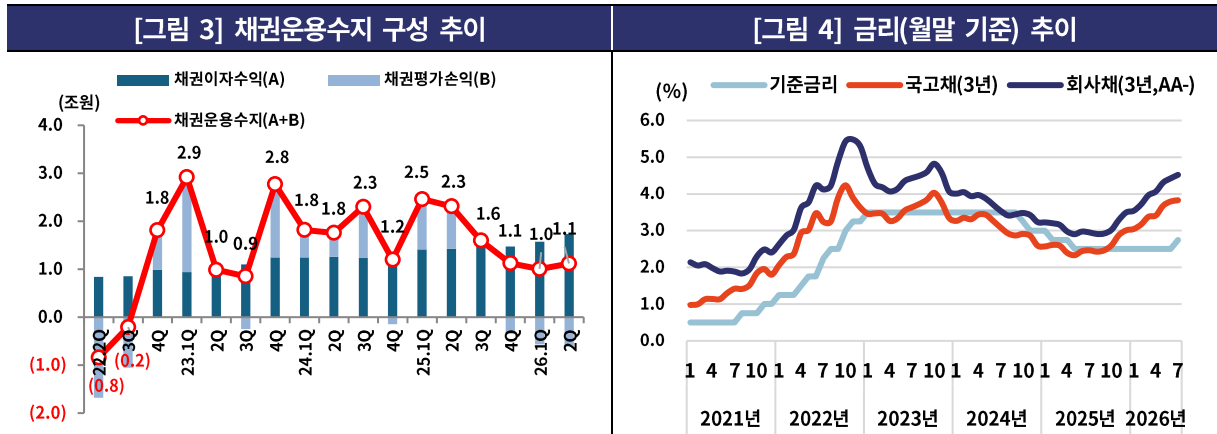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위탁매매수지 증가가 증권사 실적 개선을 주도하였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2026년 4월 이후 코스피가 급등하며, 6월 일평균 증시거래대금이 90조원에 달하는 등 주식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분기 위탁매매수지가 5.4조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분기(4.2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며 실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신용공여금 이자수익도 1.1조원으로 전분기(1.0조원) 대비 11.0% 증가하며 위탁매매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림 2] 국내 및 미국 주식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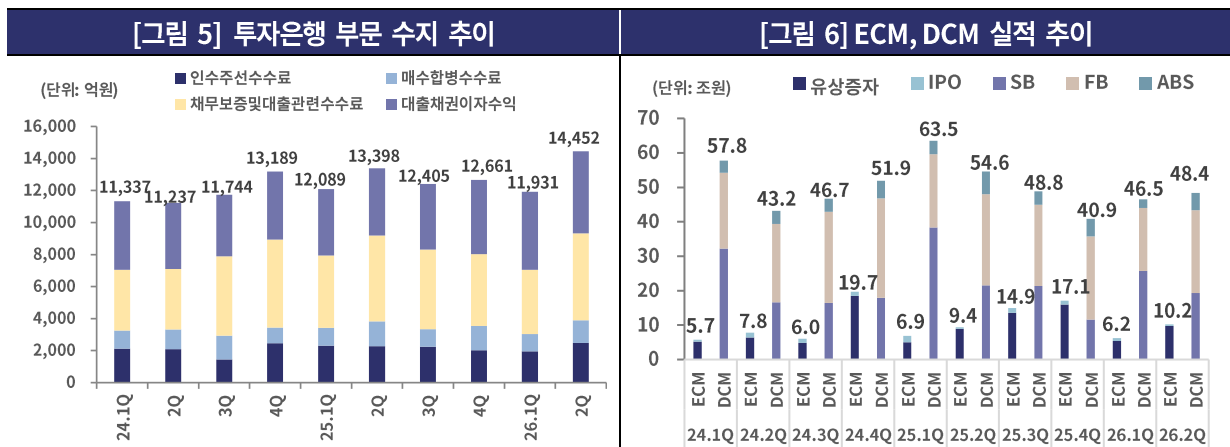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

상품운용부문 실적도 1분기 대비 개선되었다. 2026년 2분기 상품운용 수지는 주식·ETF 운용손익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3.2조원) 대비 26.9% 증가한 4.0조원을 기록하였다. 채권운용부문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이 지속되었으나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실적을 방어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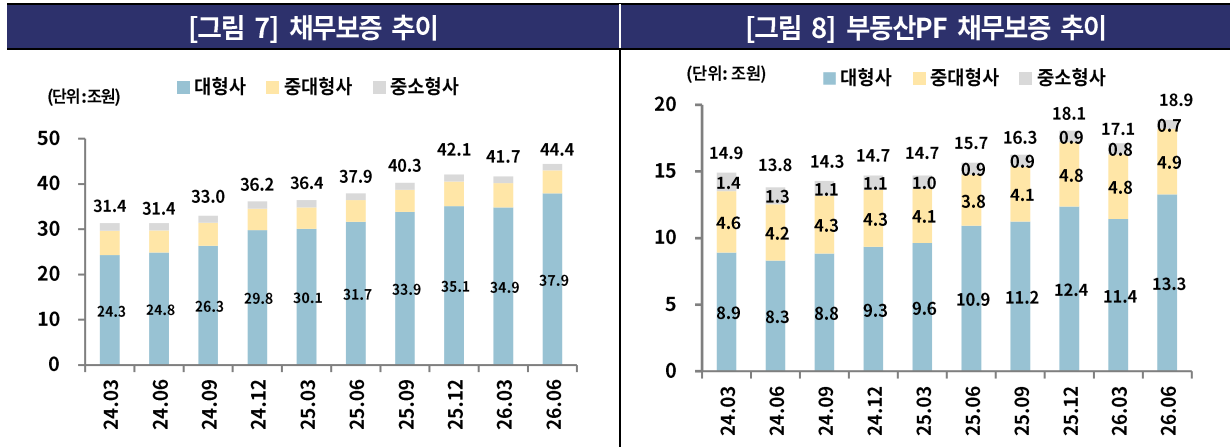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투자은행부문은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다. 2026년 2분기 투자은행부문 수지는 1.4조원으로 전분기(1.2조원) 대비 21.1% 증가하였으며, 특히 채무보증관련수수료가 5,424억원으로 전분기(4,011억원) 대비 35.2%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하였다. 대출채권이자수익도 5,128억원으로 전분기(4,889억원) 대비 4.9% 증가하며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ECM·DCM 발행규모는 금리상승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위축되었으나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인수주선수수료는 2,472억원으로 전분기(1,961억원) 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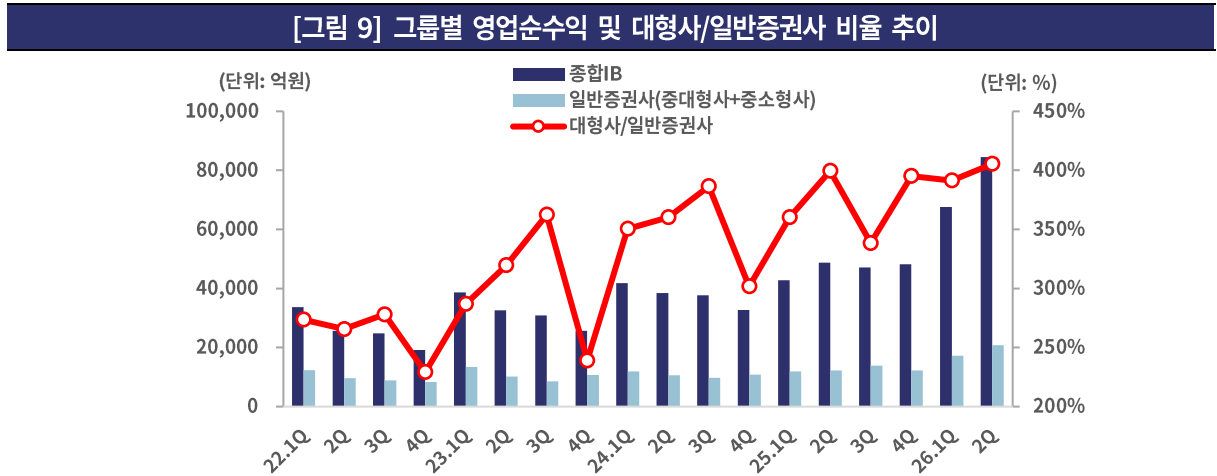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더벨 리그테이블, KR가공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연합뉴스포맥스, KR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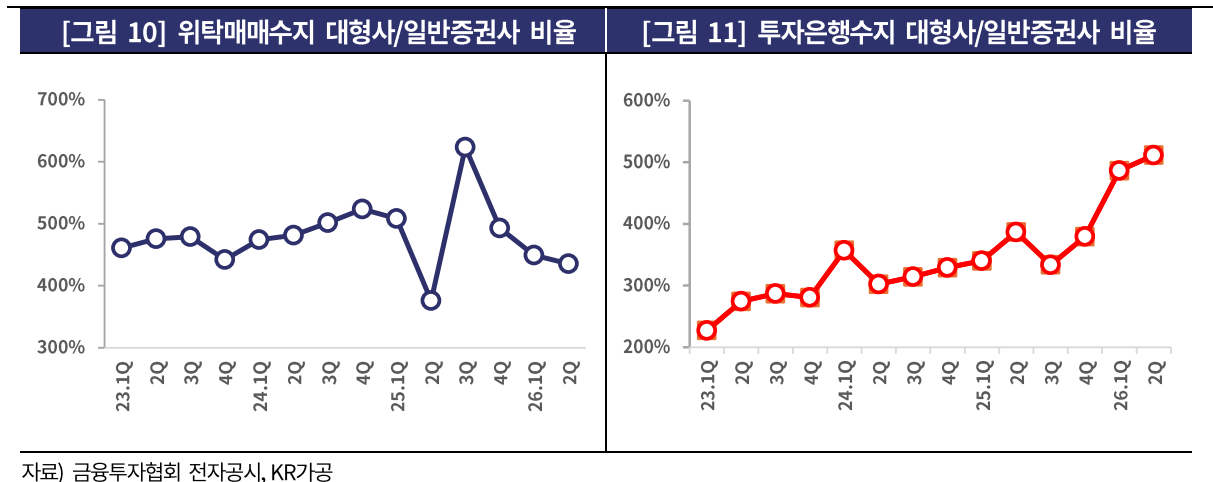
2. 그룹별 실적 격차 확대

종합B의 위탁매매수지 증가가 증권업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하면서 그룹별 실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증권사(중대형사+중소형사) 대비 종합B 영업순이익 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2분기 기준 그룹 간 영업순이익 차이도 6.4조원으로 전년 동기(3.7조원)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위탁매매를 포함한 상품운용, IB, WM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B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B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격차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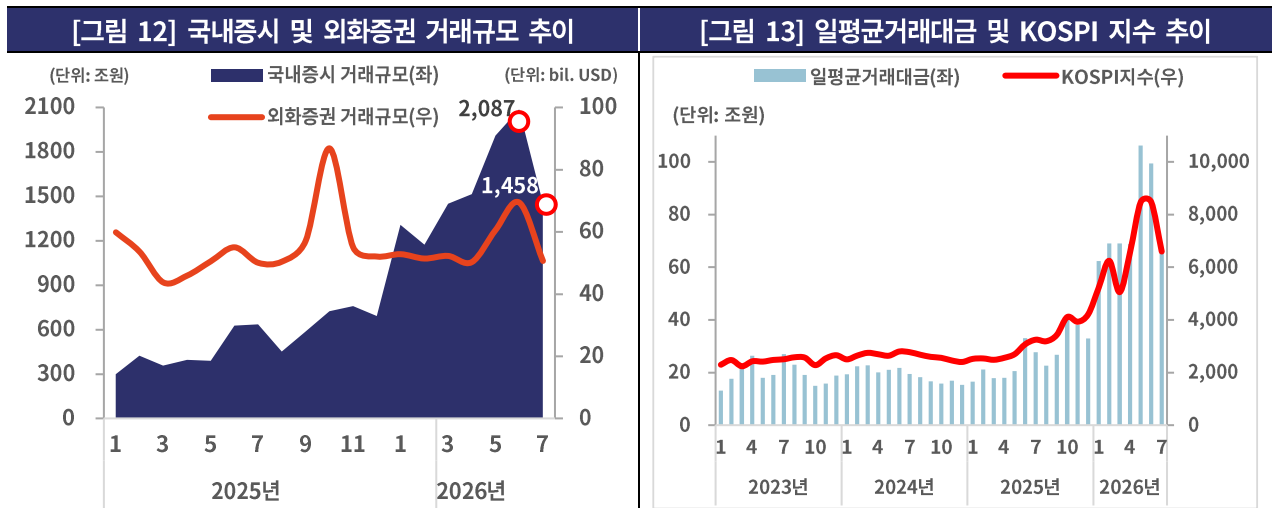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특히 투자은행부문에서 종합B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B의 2026년 2분기 투자은행부문 수지가 1조 2,0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646억원) 대비 13.6% 증가하였으나, 일반증권사는 2,363억원으로 전년 동기(2,752억원) 대비 14.1% 감소하였다. 종합B의 경우 유상증자 및 IMA, 발행어음을 통한 투자여력 확대에 힘입어 IB부문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일반증권사는 IB부문 내 PF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PF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실적 감소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3. 주요 모니터링 요인 및 신용평가 계획

증시 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매매부문 중심 실적 개선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증시 거래규모는 코스피 조정과 함께 6월 2,087조원에서 7월 1,458조원으로 약 30% 감소하였다. 8월 들어 코스피가 일부 반등하였으나 거래대금 규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지수 흐름과 거래대금 변동에 따른 위탁매매 실적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 및 위험값 개정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8일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한도 100% 이내) 규제가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 규제로 개편되었다. 부동산 투자금액에는 PF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 지분투자, 펀드 등이 포함되며, 경과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을 2026년 말까지 1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후 한도는 매년 10%p씩 하향되어 2029년부터 100%가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투자금액 관련 위험액 산정기준이 사업단계와 LTV 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18%(무등급 일반법인 채무보증 기준) 수준의 위험값이 적용되던 PF 채무보증은 본 PF·브릿지론 및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값이 상향된다. 다만, 개정 기준이 신규 투자부터 적용되는 만큼,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향후 신규 투자 과정에서 투자금액 한도와 NCR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표 3] 부동산 투자금액의 위험값

구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브릿지론 단계	본PF 단계	
위험값	60%	24%	거래상대방별 위험값(0~32%)

주) 1.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등 단계로서 상환 재원이 본PF 등인 경우
 2. 관련 인허가 등이 완료되거나 시공사의 도급계약 등이 체결되는 등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단계로서 상환 재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인 경우
 자료) 금융투자업시행세칙

[표 4] 부동산 투자금액 위험값 종전, 개정 비교

투자형태	그룹별	종전 위험값(투자형태별)	개정 위험값(사업단계 및 LTV별)		
			투자형태	저LTV(60% 이하)	고LTV(60% 초과)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종회사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x 1.5 (무등급 PF, 브릿지론 18%)	채무보증 한도대출약정	[표 3] 위험값	[표 3 위험값] x 1.5배
	일반증권사		매입약정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x 1.5배	
부동산 관련 펀드	종회사	60%	대출채권	종회사: [표 3] 위험값 일반증권사: 100%(영업용순자본 차감)	종회사: [표 3] 위험값 x 1.5배 일반증권사: 100%(영업용순자본 차감)
	일반증권사			집합투자증권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	종회사	국내 주거시설: 100% (영업용순자본 차감), 3개월 초과 부동산 대출 중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 60%	집합투자증권	국내부동산 단, 편입자산 분해불가: 60%	[표 3] 위험값 단, 편입자산 분해불가: 60%
				해외부동산 Max(60%, [표 3] 위험값)	Max(60%, [표 3] 위험값 x 1.5배)
	일반증권사	100% (영업용순자본 차감)	출자금, 지분증권, 무담보 등	[표 3] 위험값 x 1.5배(고 LTV 간주)	

주) 1. 투자대상 부동산 자산의 LTV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값 x 1.5배 적용
 2. 개정 위험액 산정기준은 2026년 7월 8일 이후 신규 취급한 부동산 투자부터 적용, 기존 부동산 투자의 만기연장은 제외
 3. 일반법인 무등급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값 12%
 자료) 금융투자업시행세칙, KR 가공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과 위험값 상향 등 규제 강화로 증권사 전반적으로 신규 부동산 투자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 개정에 따른 영향은 자본력이 열위인 일반증권사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B는 유상증자와 대규모 이익유보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본 및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반증권사는 이익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중·후순위 PF채무보증 등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중심 영업구조로, 향후 신규 투자 시 위험값 상향에 따른 NCR 부담이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F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영업환경도 비우호적인 가운데, 신규 우량 PF 취급이 종합B에 편중되면서 일반증권사의 실적 확보 부담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7월 이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품운용부문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관찰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채권평가손실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최근 상품운용 수지가 주식·ETF 운용손익을 중심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증시 하락 시 상품운용부문 실적이 위축될 수 있다. 8월 이후 주가지수가 반등하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으로 향후 금리 및 주가지수 흐름에 따른 운용실적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4. 별첨

[표 5] 대형사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4.2Q	24.3Q	24.4Q	25.1Q	25.2Q	25.3Q	25.4Q	26.1Q	26.2Q
위탁매매부문	16,494	16,120	15,619	15,963	17,768	20,848	25,128	35,074	43,714
상품운용부문	18,948	18,622	13,307	23,052	26,421	20,196	17,546	25,047	32,434
투자은행부문	8,443	8,908	10,114	9,341	10,646	9,544	10,019	9,897	12,089
자산관리부문	2,401	2,184	2,065	2,393	2,484	2,991	2,866	4,566	6,982
기타부문	-7,835	-8,143	-8,421	-7,955	-8,533	-6,504	-7,376	-6,958	-10,723
영업순수익	38,451	37,692	32,684	42,794	48,785	47,075	48,182	67,625	84,496
판매관리비	18,389	18,260	19,482	18,838	20,810	20,954	22,796	26,019	33,117
총당금적립액	642	774	3,631	1,652	2,095	1,139	5,832	257	2,078
영업이익	19,420	18,658	9,571	22,304	25,881	24,982	19,554	41,349	49,301
영업외수지	-117	228	-1,132	711	1,104	-1,595	-2,129	705	951
순이익	14,431	14,308	6,377	17,450	20,679	17,928	13,685	30,949	37,567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표 6] 중대형사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4.2Q	24.3Q	24.4Q	25.1Q	25.2Q	25.3Q	25.4Q	26.1Q	26.2Q
위탁매매부문	2,473	2,295	2,084	2,177	2,561	3,096	3,550	5,709	7,289
상품운용부문	3,285	2,651	3,110	3,689	4,696	2,729	2,403	3,485	4,030
투자은행부문	1,705	1,985	2,182	1,772	1,789	1,845	1,579	1,403	1,684
자산관리부문	469	481	467	525	537	756	741	1,069	1,314
기타부문	-538	-202	-415	-134	-408	-400	-373	-357	-580
영업순수익	7,394	7,210	7,428	8,028	9,175	8,027	8,075	11,308	13,738
판매관리비	4,311	4,626	4,934	4,922	5,527	5,369	5,660	7,318	8,044
총당금적립액	2,542	1,234	2,102	654	325	571	1,347	254	590
영업이익	541	1,350	392	2,452	3,323	2,087	1,068	3,736	5,103
영업외수지	-150	-153	-199	-49	72	145	-116	143	148
순이익	228	882	204	1,878	2,602	1,701	826	3,011	4,001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표 7] 중소형사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4.2Q	24.3Q	24.4Q	25.1Q	25.2Q	25.3Q	25.4Q	26.1Q	26.2Q
위탁매매부문	952	920	899	965	2,165	248	1,548	2,097	2,754
상품운용부문	1,300	870	1,626	1,811	2,774	1,954	1,618	3,154	3,750
투자은행부문	1,089	850	892	976	963	1,016	1,063	632	679
자산관리부문	150	123	148	173	52	288	160	196	272
기타부문	-210	-219	-160	-76	-873	332	-272	-111	-354
영업순수익	3,280	2,544	3,405	3,849	3,037	5,883	4,118	5,969	7,100
판매관리비	2,514	2,376	2,672	2,668	2,210	3,572	3,137	3,576	4,250
총당금적립액	835	65	813	224	124	1,098	698	386	675
영업이익	-68	103	-80	956	702	1,214	283	2,007	2,175
영업외수지	-6	66	-27	-13	444	-295	0	16	65
순이익	-88	145	-104	736	557	1,057	254	1,601	1,756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KR가공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견으로 당사의 공식적견이 아닙니다.